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건
337	211	167	68
(미사 시작)	(주여 나의 몸과 맘)	(생명이신 천상 양식)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제 1독서 | 레위 13,1-2.44-46

### 화답송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좌)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우)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 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 나이다. ◎

○(좌)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0,31—11,1

###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40-45

### 영성체 후 묵상 |

나병 환자가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A leper came to Jesus and pleaded on his knees: 'If you want to' he said 'you can cure me.' Feeling sorry for him,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Of course I want to!' he said. 'Be cured!' And the leprosy left him at once and he was cured. Jesus immediately sent him away and sternly ordered him, 'Mind you say nothing to anyone, but go and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make the offering for your healing prescribed by Moses as evidence of your recovery.' The man went away, but then started talking about it freely and telling the story everywhere, so that Jesus could no longer go openly into any town, but had to stay outside in places where nobody lived. Even so, people from all around would come to him.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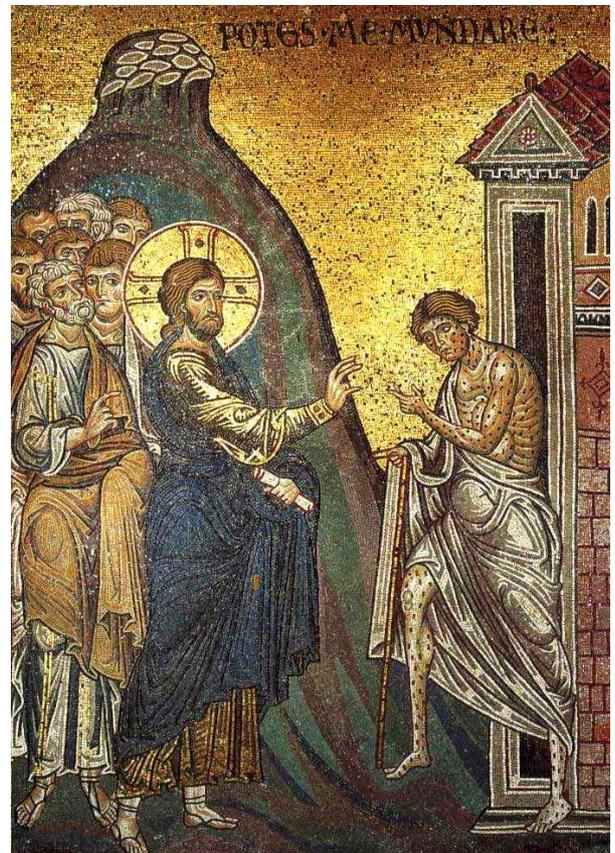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Short Reflection>

Lepers were considered impure and,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s of the law, they had to remain outside of inhabited centers. They were excluded from every human, social and religious relationship. Jesus Christ allows the man to approach and is moved even to the point of extending his hand and touching him. This was unthinkable at that time. This is how he fulfills the good news he proclaims: God draws near to our lives, he is moved to compassion because of the fate of wounded humanity and comes to break down every barrier that prevents us from being in relationship with him, with others and with ourselves.



기도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관찰한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청하지만, 때때로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

한 경험을 자주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아픈 사람의 건강을 위한 기도이거나 혹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기도처럼) 고귀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쟁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청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마태 7.10 참조), 왜 우리의 청원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가 아는 친구, 우리가 아는 아버지,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은 경험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체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주술적인 것으로 바꾸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기도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735항 참조). 이러한 기도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 우리의 뜻에 따라 사건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 외의 다른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있어서 큰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

시피 '주님의 기도'는 온전히 청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모두 하느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청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9-10).

바로 사도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상기시킵니다(로마 8.26 참조). 우리는 필수품,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요, 올바르게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가장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나에게 가장 올바른 방식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느님께서 거부하시는 허튼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지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회장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쓰기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길 열망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참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을 쏟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를 회심시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우리가 하느님을 회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올바른 방식을 구하고, 제 영적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스캔들(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 나라에 부합하는 선을 구할 때,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느님께서서는 때때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음주 주보에 계속..>

## 공지 사항

### 1.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한인공동체 미사)

- 재의 수요일 미사 : 2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St. Vincent de Paul's Church
- 재의 수요일 로컬 영어 미사 (하단 참고)  
07:00 Mass : St. Matthew's Church,  
09:30 Mass : St. Matthew's Church  
09:30 Mass : St. Vincent de Paul's Church  
18:00 Mass : St. Vincent de Paul's Church

### 2. 사순 제 1주일 미사 안내

2월 18일(주일)은 사순 제 1주일입니다. 사순시기 주일미사에는 '대영광송' 및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 3. 사순시기 고해성사 권고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1월 28일	유아·청소년: 10명	성인: 39명
2월 4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47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2월 11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2월 18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2월 11일)	루카반
다음주 (2월 18일)	마르코반

### <재의 수요일에 관하여 - Ash Wednesday>

이날부터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중, 사제는 참회의 상징으로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재의 예식' 때 사제는 나뭇가지를 태운 재에 성수를 뿌려 축복한 다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재를 얹습니다. 교회는 이 재를 얹는 예식을 통하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모든 권한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께 신뢰를 두며, 회개함으로써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로 나아가갈 준비를 하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재의 수요일에 신자들이 금육(禁肉)과 한끼 금식(禁食)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을 새롭게 정화하는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2월 3일 ~ 2월 9일)

봉 헌 금	\$312			
교 무 금	\$690			
강원혜	권묘순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양홍석	윤현태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